

보도시점 2024. 4. 5.(금) 11:30 배포 2024. 4. 5.(금) 10:00

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다

- 최 부총리, 기재부 2030 자문단(Young Dynamics)에게 일자리·주거·자산 정책제안 듣다
- 역동경제의 한 축인 「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 4월중 발표 계획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.5(금) 10:00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2기 기획재정부(이하 기재부) 2030 자문단 ‘영 다이내믹스(Young Dynamics)(이하 자문단)’의 정책제안 발표회 「청년, 기재부에 바람」에 함께하였다.

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. 올해 초 출범한 자문단은 지난 1월 최 부총리와의 「미래세대와의 대화」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왔으며, 실제로 청년 제안과제 20개가 지난 번 발표한 「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」에 반영되기도 하였다.

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일자리와 주거·자산 정책에 대해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, ‘경단녀’ 지원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, 자산형성 지원강화, 주거·시설 등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.

최 부총리는 “청년정책은 청년을 수혜자로 하는 정책을 넘어, 미래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설계된 정책”이라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, “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이 ‘어제보다 나은 오늘’을 기대하고 실제로 ‘오늘보다 나은 내일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의 주요 축인 「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을 4월 중 마련·발표할 예정이며,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 (044-215-858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현지 (hj.lee830@korea.kr)



붙임**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「청년 기재부에 바람」 개요**

- **일 시** : '24. 4. 5(금) 10:00
- **장 소** :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(2층)
- **참석자** : 부총리(주재), 청년보좌역·2030 자문단,
분야별 전문가 멘토*, 담당 사무관 멘토 등
- * (일자리1) 오종현(조세연) (일자리2) 노민선(중기연)
(주거·자산1) 강지원(보사연) (주거·자산2) 이승협(KDI)

□ **세부일정** :

시 간		내 용
10:00~10:05	5'	■ 부총리 인사말씀
10:05~10:15	10'	■ 자문단 활동성과 보고 및 활동소감 발표
10:15~11:25	70'	■ 정책 제안서 발표 및 토론
11:25~11:30	5	■ 마무리 말씀